

##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가톨릭교회: 『영웅 스티븐』<sup>\*</sup>

최 석 무

### I

종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오랫동안 한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18세기, 19세기 서구 유럽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종교의 역할이 차츰 쇠퇴하고, 종교 대신에 ‘조국, 민족, 자유, 이성’ 등의 세속적인 것에 성스러운 역할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가져온다. 민족(nation)은 그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의 개념으로 “시민 종교”(civil religion)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nationalism)를 만든다.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의식이나 믿음”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민족의식이 사회 통합의 주된 근원”이 된다. 그리고 민족 구성원들은 민족을 위해 싸우고 희생할 것을 요구받는다(Santlago 395-98).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서구 민족주의 담론에선 민족에 대한 희생으로 바뀐다.

---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0세기 전환기 서구 유럽에서 유일한 식민지인 아일랜드에서는 서구 유럽과 달리 전통적인 종교인 가톨릭이 어느 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가톨릭은 새로이 대두된 ‘시민 종교’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까?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 시대, 특히 조이스가 대학을 다니던 20세기 전환기의 아일랜드에서 민족주의가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가톨릭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조이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이스와 가톨릭교회, 민족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조이스의 습작인 『영웅 스티븐』(*Stephen Hero*)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논문에서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영웅 스티븐』은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스티븐의 대학 시절(1898년~1902년) 이야기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습작으로 알려졌지만, 많은 부분이 소실되어 두 작품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스티븐의 대학 시절 이야기라는 점에서 『초상』의 5장과는 비교할 수 있다. 프리드먼(*Susan Stanford Friedman*)에 따르면 전자는 “사실주의,” 후자는 “모더니즘”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이스가 1906년에 전자의 작품 집필을 포기했을 때도 “1,000쪽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었고, 후자는 이를 “압축”한 작품이다(*Friedman 29, 31*). 『영웅 스티븐』의 특이한 점은 가톨릭교회와 신부, 그리고 이들의 정치, 문화, 사회적 활동을 세밀하고 직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상』 5장은 스티븐의 예술가로서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기에 가톨릭교회와 신부의 이야기는 스티븐이 벗어나야 하는 구속의 대상 중 하나로 주변화된다. 『영웅 스티븐』이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06년 이전의 아일랜드 상황, 특히 가톨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조이스는 이 작품의 집필을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출판 시에 하게 되는 수정 및 교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20세기 초는 아일랜드 혁명의 시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조이스의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 또는 출판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된다. 『영웅 스티븐』을 다시 쓴 『초상』은 조이스가 1914년에 집필을 마쳤지만,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1914년 텍스트라고 할 수 없다. 조이스는 “1924년에 조너선 케이프(Jonathan Cape) 출판사 발행 판본에 마지막으로 직접 교정을 하였다”(Gabler 1). 1964년에 바이킹 프레스(Viking Press)에서 『초상』의 결정판을 출판하지만, “이 판을 준비한 학자도 이 텍스트가 진짜 결정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Gabler 1). 『영웅 스티븐』은 이와 달리 1906년 이전의 시대 상황을 조이스가 창작할 당시의 시각 그대로 보여준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가톨릭교회의 관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였기에 조이스의 습작은 20세기 전환기의 두 세력의 관계를 조명하기에 적합하다.

## II

12세기에 앵글로 노만(Anglo-Normans)이 아일랜드에 오기 전에 아일랜드인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비교적 동질적 집단이었지만, 가톨릭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가톨릭은 갈등 관계에 있는 분파와 부족을 통합하지 못해 아일랜드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18세기만 해도 아일랜드 애국심은 신교도의 전유물이었다”(Hempton 75). 유나이티드 아이리시멘(United Irishmen)의 봉기가 일어난 1790년대가 끝이 나자, “천부인권에 기초한 혁신 사상이나 온건 개혁주의 보다 종교적인 파벌주의가 아일랜드의 더욱 강력한 현실”이 된다(Hempton 78). 그리고 “1790년대 이후에 아일랜드 애국심은 거의 가톨릭의 전유물이 되어 가면서” 가톨릭과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연관되기 시작한다(Hempton 75). 가톨릭(Catholic)과 아일랜드인(Irish)이 상호 교환 가능한 말이 된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다. 머피(John A. Murphy)는 “1880년대 중반”이라고 하고(133), 라킨(Emmet Larkin)은 “1914년”이라고 주장한다(1244). 이들 학자의 주장

은 다르지만, 20세기 전환기는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가톨릭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독립은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시기이다. 아일랜드가 12세기 이후로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을 이루게 할 원동력이 된 정체성은 비교적 늦게 형성된다. 한 민족의 정체성은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 제국주의의 목적으로 토속종교를 배척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의 결과 피지배민의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이 함해진다.

19세기에 아일랜드 가톨릭교도에게 중요한 지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1820년에 시작된 “새 복음주의 또는 제2 종교개혁”이라는 신교도의 가톨릭 전도 운동으로 일종의 토속종교인 가톨릭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촉발된다(Murphy 132). 이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반 신교도적인 정서를 자극하게 된다. 19세기 초 오코넬(Daniel O’Connell, 1775-1847)의 등장과 그의 가톨릭 협회(The Catholic Association)의 창립은 ‘1829년의 가톨릭 해방법’(Catholic Emancipation Act 1829)을 가져오게 되고, 성공회 교회에 십일조를 내는 신교회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성공회 교회의 특권은 ‘1869년의 아일랜드 교회법’(The Irish Church Act 1869) 등의 통과와 더불어 아일랜드 가톨릭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오코넬 시대에도 아일랜드인과 가톨릭은 동일시되는 시기가 아니었다. 가톨릭교도가 차별받는 시기였고 이 차별은 민족주의의 내재적인 요소가 되지만, 가톨릭교도들은 “신교도의 지배가 끝나기를, 아일랜드의 땅을 확고하게 소유하는 가톨릭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Murphy 133). 오코넬은 합방철회를 요구했지만, 영국 제국 안에서의 아일랜드인을 상상했다. 그는 “유나이티드 아이리시멘의 공화주의(republicanism) 부활”을 원치 않았고, “확고한 왕정주의(royalism)가 그가 1840년에 조직한 대규모 합방철회 집회의 지배적 의견이었다”(Tanner 249).

오코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교도 해방에는 전적인 지지를 보였던 반면에 합방철회”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Larkin 1249). 『초상』에서 사이몬 데달러스(Simon Dedalus)는 이를 비난하면서 “주교들과 성직자들은 1829년 가톨릭교도 해방의 대가로 자신의 나라 열망을 팔아먹지 않았던가?”라고 말한다(P 38).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교도들이 영국 시민으로 영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했다. 흥미롭게도 이들 아일랜드 가톨릭 성직자들의 견해는 영국 대중의 그것과 같았다. 영국사람들은 가톨릭교도 해방을 “자유와 해방”의 문제로 보아 찬성했고, 합방철회를 “주권”(sovereignty)의 문제로 여겼기에 반대했다(Larkin 1250). 아일랜드 자치를 위해 싸웠던 파넬(Parnell)이 실권할 때도 수상인 글래드스톤(Gladstone) 등 영국인의 태도는 중요했다. 사이몬 데달러스는 이를 비난하면서 아일랜드인은 영국사람의 요구대로 [파넬]을 버렸다”(P 32)가 말한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등장과 가톨릭교회의 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과정으로 아일랜드에서 정치적 독립은 종교적 독립과 일치한다. 폴 컬런(Paul Cullen, 1803-1878)은 아일랜드 가톨릭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대기근 이후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촉발된 “신앙의 혁명”(devotional revolution)은 “아일랜드인을 실제로 믿는 가톨릭으로 만들고,”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 어디서나 아일랜드 가톨릭교회가 보편적인 가톨릭교회”가 되게 했다(Larkin 1244). 아일랜드에서의 이러한 종교부흥은 서유럽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 결과, 19세기 말 아일랜드, 특히 농촌지역에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동질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킨이 주장하듯이, “아이리시와 가톨릭은 상호 교환 가능한 용어가 될 뿐만 아니라 가톨릭이 포괄적인 용어가 된다”(1244). 가톨릭교회는 민족(nation)과 국가(state)와 더불어 “아일랜드 정치체계의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Larkin 1244-45).

## III

19세기 말은 아일랜드 언어와 문화 등을 통한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게일릭 부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신교도 출신의 더글라스 하이드(Douglas Hyde)는 1893년에 게일릭 연맹(Gaelic League)을 세워 아일랜드 언어와 문화를 통해 신교도/구교도의 경계를 넘는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한다. 그 이유는 게일릭 아일랜드는 “서부 지역에 국한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창조할 공통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White 28). 이 단체는 가톨릭 민족주의자들이 인수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족주의자들을 양성하는 데 이용된다. 패트릭 피어스(Patrick Pearse) 등 1916년 부활절 봉기에 참여한 다수의 민족주의자가 이 연맹에서 활동했다. 게일릭 문화 부활 운동은 설립 취지인 모든 아일랜드인을 하나로 묶는 “대안적인 정체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가톨릭 정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Murphy 135). 게일릭 부활 운동과 가톨릭은 “상호 지지하는 관계”로 아일랜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했다(Murphy 135). 게일릭 연맹은 신교도가 주도적으로 세운 비정치적인 단체이지만, 가톨릭이 그 가치를 전유하여 가톨릭적인 아일랜드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웅 스티븐』은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 언어 부활 운동을 후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일랜드어 강습소 벽에 “오그로우니 신부의 초상화”(SH 60)가 있고, “금요일 밤 모임은 대중적이었고 신부들이 크게 후원을 했다. . . . 신부들이 격려의 연설을 했다”(SH 61). 매든(Madden)과 스티븐의 대화 속에서 게일릭 부활 운동과 가톨릭교회는 “상호 지지하는 관계”로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매든은 게일릭 부활 운동이 “가능한 사제와 손을 잡고 일하고자 갈망한 이유”는 “약간의 부정함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이 물려들지 않을 것”(SH 53)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제들은 아일랜드 언어 수업을 장려했는데 이는 “그들의 신도들이

불신의 늑대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글자 그대로의 맹목적인 신앙의 과거로 들어가게 하려는 기회”(SH 54)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아일랜드어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어, “영어는 상업의 언어이고 아일랜드어는 영혼의 언어”(SH 59)라고 아일랜드어 강사는 말한다. 『초상』에서 유모로부터 아일랜드어를 배우고 신화를 알게 된 데이빈(Davin)은 “아일랜드 신화에 대해서 . . . 로마 가톨릭을 대할 때처럼 우둔한 충성스러운 농노의 태도”(P 180)를 가진다. 이를 통해 민족주의자들은 게일릭 문화부흥 운동과 가톨릭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IV

스티븐은 아일랜드어 부활 운동을 신부와 함께하게 되면 “또다시 혁명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반대한다”(SH 53). 이에 매든은 스티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제는 국민 편에 있다”(SH 53)고 말한다. 스티븐과 매든의 말은 그동안 신부들이 혁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는 민족주의 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테너가 주장하듯이 1798년 반란 이후에 영국 정부와 더블린 캐슬(Dublin Castle)은 가톨릭교회가 “혁명을 막을 방파제이고 아일랜드 농민을 적당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였다(209). 『초상』에서 사이몬은 “설교단과 고해소에서 주교들과 신부들이 독립운동을 비난하지 않았는가?”(P 38)라고 말하면서 가톨릭교회의 반민족주의 성향을 지적한다.

폴 켈런은 19세기 아일랜드 신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대기근 이후에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초상』에서 사이몬은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켈런을 “하느님의 눈동자”(P 39)라고 비웃는다. 켈런은 피니언(fenians)을 경멸하고 혁명을 거부하였는데 그는 아일랜드 애국자인 테렌스 맥마누스

(Terence MacManus)의 가톨릭적 장례식을 반대하여 그의 “유해를 욕되게 한 자”(P 38)이다. 켈런은 합방을 지지하여 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은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많지만, 제국의 국회가 그러한 불만을 해결할 적합한 장소이다. 일단 이 문제가 다루어지면 아일랜드는 행복과 평화를 되찾고 제국의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Tanner 251). 그가 살아있는 동안 “왕권에 대한 존중이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견해였다”(Tanner 252). 그는 “아이리시 국회당(Irish Parliamentary Party)이 사실상 가톨릭 로비 단체가 되고, 영국 자유당(British Liberal Party)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Deane 286).

『초상』에 언급되는 윌리엄 월시(William Walsh, 1885-1921)와 마이클 로그(Michael Logue, 1839-1924)는 사이몬이 “영국 정부의 지지자”(Deane 285)라는 의미로 “리트럼 경(Lord Leitrim)의 마부”(P 33)라 부르지만, 그들은 켈런과는 달리 민족주의자였다. 특히, “영국 정부는 월시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규정하고 더블린 주교구에서 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울 정도였다(Rafferty 303). 사이몬이 그들을 비난한 것은 그들이 파넬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는 아이리시 국회당 의원의 주장인 파넬을 반대하고 그의 실각을 불러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톨릭교회가 파넬을 거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통제할 수 있는,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아일랜드 자치를 완성할 것을 기대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를 환영하지 않았다”(Tanner 262). 오코넬은 “완벽한 가톨릭 정치가의 전형”으로 “가톨릭교회의 협력자”(Barr 17)이었지만, 파넬은 신교도로서 믿을 수 없는 정치가였기에 반대했다. 가톨릭교회는 유나이티드 아이리시 멘의 혁명을 반대했는데 이는 혁명의 주도 세력이 “신교도 귀족 출신 자유사상가”로 “무신론적인 성향과 공화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다(Tanner 235). 그러나 파넬을 반대하였다고 해서 가톨릭교회가 파넬이 상정한 자치법안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1886년에 첫 번째 자치법안이 부결되자, 가톨릭 주교들은 크게 실망한다. 그들은 아일랜드 자치가 실현되

면, “영국 제국의 다른 나라와 자매와 같은 합방(*sisterly union*)의 관계”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Tanner 256). 가톨릭교회는 공화국이 아니라 영국 제국의 일부로서의 아일랜드 자치를 소망했다. 이런 양상은 1914년 이후에도 지속된다. 추기경이 된 마이클 로그는 아일랜드 자치와 신페인(Sinn Fein)을 지지했지만, 1차 세계대전 시에 영국 왕에 충성하여 “전쟁을 지원하는데 선봉에 섰고 아일랜드인이 싸울 의무에 관해 말했다”(Rafferty 305).

## V

가톨릭교회는 교육을 통해 가톨릭적 이상에 맞는 아일랜드인을 육성하려고 했다. 스티븐이 다니는 더블린 대학(*University College Dublin*)은 폴 컬런의 주도로 세워진 아일랜드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Ireland*)을 모태로 하는데, 후자는 ‘신이 없는 대학’(godless colleges)이라고 불린 아일랜드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 of Ireland*)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졌다. UCD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정치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다. 퇴역 대령인 러셀(*Colonel Russell*)은 대학의 연사로 등장하는데 그는 “반동적인(*reactionary*) 성향”(SH 172)을 가진 인물이다. 민족주의자이고 혁명가적인 성향을 지닌 템플(*Temple*)은 “대령의 사고방식에 반대하여 ‘미친 몰라(*Mad Mullah*) 만세’라고 외친다”(SH 174). ‘미친 몰라’는 영국의 지배로부터 소말리아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정치, 종교, 군대 지도자인 모하메드 압둘라 하산(*Mohamed Abdullahi Hassan*)을 가리킨다. 템플의 이러한 반응은 대령이 영국 군인으로 소말리아 식민지 유지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산은 영국이 “[소말리아]의 종교를 말살하고 우리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든다”라고 비난한다(Irons 133). 이는 가톨릭 신부들이 굶주린 아동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영국인으로 입양한 사건 때문에 발생한다. 가톨릭대학에서 러셀

과 같은 사람을 연설자로 등장시킨 것을 통해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와 영국 제국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영국 제국의 도움을 받아 가톨릭 선교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국 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모든 연사는 대학에서 예수회의 성취에 대해 찬양을 하는데, UCD와 같은 예수회 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신부들처럼 영국적인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글래드스톤, 물상과학,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몹시 좋아한다”(SH 172). 아일랜드 가톨릭 학생들이 좋아하는 3가지 중의 하나가 영국 예술가인 것은 가능하나 영국 정치가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글래드스톤은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아일랜드 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얻어 수상으로 선출된다. 그는 1881년 ‘아일랜드 강제법’(Ireland Coercion Act)을 제정해 소작인을 억압하려는 법을 만들었지만, 아일랜드 자치법안과 토지 개혁 법안 등 아일랜드 가톨릭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거나 통과시켜 아일랜드 가톨릭의 위상을 높였다. 그의 아일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은 집권하기 위한 전략이며 영국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가 출판한 팸플릿에는 그의 반가톨릭적 성향을 볼 수 있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아시아 군주제”라고 비판했고, 특히 교황 무오설에 반대하는 팸플릿을 출판해 “교황의 칙령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한다”라고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난했다(Idol Network). 그의 이러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대학생들이 그를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한 성직자가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은 “글래드스톤, 비스마르크(Bismarck), 그리고 우리들의 대주교”(SH 74)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글래드스톤이 포함된다. 그런데 글래드스톤과 더불어 독일의 수상으로 독일 가톨릭을 억압한 비스마르크가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다.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아일랜드에서는 존경할만한 정치가가 없고 그 자리를 신부가 차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7년간 거주하다 돌아온 힐리(Healy) 신부도 “글래드스톤이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사

람이다”(SH 157)라고 말한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새롭게 나타난 게일릭 부활 운동과 새로운 문학 운동”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니언 출신의 시인인 “존 보일 오라일리(John Boyle O’Reilly)의 작품을 독백”(SH 157)할 정도로 혁명적인 사상으로 가득한 신부로 보인다. 사실,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될 것을 요구한 공화주의는 1798년 봉기를 주도한 유나이티드 아이리시펜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독립이라는 성과를 가져온 것은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이 조직한 피니언 단체의 역할이 컸다. 이런 피니언의 지지자인 힐리 신부마저도 영국 정치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당대의 지배적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초상』에서 극장에서 쇼가 끝나자, 고관들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중의 한 명이 글래드스톤이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오, 윌리, 우리는 당신이 그리워요”를 연주하자, 스티븐은 “바보 같은 민족”(P 272)이라고 정복자 영국인을 추모하는 아일랜드인의 감상주의를 비판한다. 파넬 지지자들은 글래드스톤이 “파넬 배반을 개시한 자”로 믿었다(Deane 328). 글래드스톤 때문에 아일랜드 독립이 지연되었음에도, 아일랜드인들은 자신을 억압한 자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인다.

UCD 학생들은 “학장, 아일랜드 또는 신앙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환성을 지른다”(SH 173). 그렇지만 그들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영국적이다. 그들은 “동년배들 및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영국 자유주의”(SH 172)를 옹호한다. “그들은 정신적 및 속세의 권위를 존중했다, 즉 가톨릭과 애국심이라는 정신적 권위, 그리고 위계 서열과 정부라는 속세의 권위”(SH 172-73)를 존중했다. 정신적 권위는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이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속세의 권위는 영국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원칙 하에 학생들은 아일랜드 애국자인 “테렌스 맥매너스”와 그의 가톨릭적 장례식을 반대한 “추기경 켈런”(SH 173)을 동시에 존경했다. 테렌스 맥매너스와 켈런은 양립 불가능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로 애국심을 고양 시켰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관계를 달리 설정했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일랜드를 위해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아일랜드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 테렌스 맥매너스를 존경했음은 그들이 기성세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관에 변화가 예상된다.

스티븐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제공해주는 대부(God father)인 풀햄(Fulham)은 가톨릭교회의 옹호자로 등장한다. 스티븐이 “웨스트미스(Westmeath) 주의 로마 교황의 대사”(SH 250)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아일랜드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가톨릭교도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난 “가톨릭 상인이나 전문 직종 계층”에 속하는 인물로 “실용적인 생각으로 가톨릭교도 해방의 수확물을 추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Murphy 133). 그와 언쟁이 붙는 민족주의자인 헤퍼난(Heffernan)이 이야기 하듯이, 풀햄은 “노동자”가 아니고 “민족주의 저항 운동의 결실을 즐기는 자”로 정복자 밑에서 “멋진 지위”를 가지고 있다(SH 247). 역사적으로 풀햄과 같은 가톨릭 상류층은 가톨릭 해방 후에 “교리나 신앙적 헌신적 면에서 교회의 주축”이 되는 세력이다(Murphy 133). 풀햄은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교회가 “세속 문화의 주된 저장소이고, 학문의 전통은 수도승한테서 나왔다”라고 말한다(SH 241). 그는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그의 “교회에 대한 열정은 봉건적인 차이의 존중, 그리고 이 차이를 주는 자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SH 249)라고 주장한다. 계급 간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동물에게도 귀족 혈통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있다”(SH 249)라는 논리를 편다. 그는 아일랜드 독립에 반대하고 현 체제에 만족하는 인물로 “정복자들에게 만족하오”(SH 247), 그리고 “나는 불복종 운동을 매우 싫어하오. 우리의 운명은 영국과 더불어 결정되오”(SH 247)라고 말한다. 그는 가톨릭교회는 “반역을 선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완전한 독립을 반대하는 아일랜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든은 스티븐에게 아일랜드 사람들은 가톨릭교회를 “민족의 교회”(SH 64)로 생각하고 충실히 따랐고, 경찰을 “이방인, 반역자, 민족의 억압자”(SH 64)로 본다고 말한다. 이에 스티븐은 농부는 신부와 경찰 둘 다

를 좋아하고, 둘은 공통으로 “풍채가 좋은 자”(SH 64)라고 비꼰다. 다음 장면에서 스티븐은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신부와 경찰을 만나고, 그들이 아일랜드에서 같은 모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스티븐]은 눈을 내리깔면서 큰 암소 같은 몸집의 경찰관들이 . . . 그를 쫓아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본다. 이 배회는 그를 무척이나 화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몸집이 큰 검은 옷을 입은 사제가 움츠린 신자들이 떼지어 사는 과밀거주 지역을 즐겁게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소극(farce)과 같은 가톨릭교를 저주했다: 주민들 스스로 정신적 마비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다른 이에게 위탁하는 섬, 모든 힘과 부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자들에게 있는 섬, 힘들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소”라는 말에 위안을 삼도록 지시를 받은 굶주리는 민중으로 인해 함께 살리기 위해 시저가 예수에게 고해하고 예수가 시저에게 고해하는 섬. (SH 146)

경찰과 사제가 큰 덩치의 소유자인 것은 그들이 아일랜드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어 위협적인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들은 시저와 예수로 대변되는 정치와 종교를 대변하는 인물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고해하는 장면은 정치와 종교의 공모관계를 암시한다. 『초상』에서 조이스는 경찰과 사제가 대변하는 정치와 종교의 공모관계를 더 밀접히 제시하기 위해서 모런(Moran) 신부를 “형이 더블린 경찰인 신부가 된 농부”(P 221)로 설정한다. 경찰과 신부가 형제이기에 그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아일랜드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한다.

종교와 정치의 공모관계가 보여주듯이, 세속화된 가톨릭교회는 아일랜드에서 막강한 정치세력이다. 스티븐은 가톨릭교회를 로마나 로마인/이탈리아인에 비유하면서 영국 제국주의와 비슷한 정치세력임을 강조한다. 스티븐은 “영국인이 아니라 로마인이 아일랜드의 독재자”(SH 53)라고 말하면서 가톨릭교회를 ‘로마인 독재자’라 칭한다. 그리고 그런 독재자 치하에서 스티븐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에 팔렸다”(SH 139)라고, 지금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가톨릭의 지배가 강력하기에 자신의] 천성에 있

는 모든 감정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는 없다”(SH 139)라고 말한다. 『초상』에서 스티븐은 “우리의 종교라 할 수 있는 가톨릭을 발명한 것은 [이탈리아인]이다”(P 271)라고 말하는데,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정치제도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임을 지적하면서 종교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한다.

## VI

아일랜드 민족주의는 영국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아일랜드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9세기 말에 전개된 게일릭 부활 운동은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아일랜드인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꿈꾸었으나, 아일랜드인의 통합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가톨릭교회는 가톨릭교회 해방과 신앙 혁명의 결과로 아일랜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종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아일랜드인을 단합하게 만들어 독립을 성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는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가톨릭적 정체성은 아일랜드인의 분열을 가져와 북아일랜드 문제, 아일랜드 내전 등을 초래한다. 『영웅 스티븐』에서 조이스는 종교의 민족주의 운동 참여를 비판하면서 “혁명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SH 53)라고 지적한다. 조이스는 독립 후 아일랜드엔 “자유가 더 없어졌다”(Power 169)라고 말하듯이, 종교와 결합한 민족주의는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지 못한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민족을 규정하는 “더 포괄적이고, 더 초월적인 기반”을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Murphy 151).

아일랜드에서의 종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민족주의 운동이 가톨릭교회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톨릭교회는 아일랜드 정치체계의 기본적인 요소 중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어 국가체계를 결정한다. 아일랜드 민족의 염원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이익에 따라 아일랜드의 정치적 미래를

설계한다. 조이스는 가톨릭교회가 아일랜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 사회, 문화 방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가톨릭교회를 정치집단과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아일랜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비판한다. 조이스의 가톨릭교회 비판은 신교도 지배 시대의 작가인 스위프트(Jonathan Swift)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고』(*Thoughts On Various Subjects*)에서 주장한 다음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아일랜드에서 “종교는 오랫동안 우리를 증오하게 만들었지, 사랑하게 하지는 않았다.” 스위프트의 시대나 조이스의 시대나 아일랜드 평화는 종교가 분열적인 언어로 아일랜드인을 분열시키지 않을 때 가능함을 보여준다.

(고려대)

## 인용문헌

- Barr, Colin. *Ireland's Empire: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1829-1914*. Cambridge UP, 2020.
- Deane, Seamus. Not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y James Joyce, Penguin Books, 1992, pp. 277-329.
- Friedman, Susan Stanford. "(Self)Censorship and the Making of Joyce's Modernism." *Joyce: The Return of the Repressed*, edited by Susan Stanford Friedman, Cornell UP, 1993, pp. 21-57.
- Gabler, Hans Walter. "Towards a Critical Text of James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Studies in Bibliography*, vol. 27, 1974, pp. 1-53.
- Hampton, David. *Religion and Political Culture in Britain and Ireland: From the Glorious Revolution to the Decline of Empire*. Cambridge UP, 1996.
- Idol Network. "William Ewart Gladstone Net Worth." <https://www.idolnetwork.com/william-ewart-gladstone-net-worth-57365>. Accessed 10 Mar. 2022.
- Irons, Roy. *Churchill and the Mad Mullah of Somaliland: Betrayal and Redemption 1899-1921*. Pen and Sword Military, 2013.
- Joyce, James. *Stephen Hero*. A New Directions Book, 1963.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Penguin Books, 1992.
- Larkin, Emmet. "Church, State, and Nation in Modern Ireland."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80, no. 5, 1975, pp. 1244-76.
- Murphy, John A. "Religion and Irish Identity." *Irishness in a Changing Society*, edited by Princess Grace Irish Library, Barnes & Noble Books, 1988, pp. 133-51.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Millington Books, 1974.
- Rafferty, Oliver P. "The Catholic Church, Ireland and the British empire, 1800

- 1921.” *Historical Research*, vol. 84, May 2011, pp. 288-309.

Santlago, Jose. “From ‘Civil Religion’ to Nationalism as the Religion of Modern Times: Rethinking a Complex Relationship.”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48, no. 2, June 2009, pp. 394-401.

Swift, Jonathan. *Thoughts On Various Subjects*. <http://www.public-library.uk/ebooks/97/26.pdf>. Accessed 12 Feb. 2022.

Tanner, Marcus. *Ireland's Holy Wars: The Struggle for a Nation's Soul 1500-2000*. Yale Nona Bene, 2003.

White, T. J. “The Impact of British Colonialism on Irish Catholicism and National Identity: Repression, Reemergence, and Divergence.” *Etudes irlandaises*, vol. 35, no. 1, 2010, pp. 21-38.

## Abstract

### Irish Nationalism and the Catholic Church: *Stephen Hero*

Seokmoo Choi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Irish nationalists sought to devise a unique Irish identity that could be used to justify Ireland's independence from Britain. Unlike other countries in Western Europe, in Ireland the Catholic Church played a major role in shaping the national identity; Catholic and Irish became interchangeable. *Stephen Hero* demonstrates how the Catholic Church supported the Gaelic Revival, a nationalist movement. The nationalist movement and the Catholic Church contributed to maintaining the unique identity of Irish people in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Joyce criticizes the Catholic Church'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ist movement, noting that "it ruins the chances of revolutions." Because the Irish Catholic Church designed Ireland's political future in the interests of the Church, the aspirations of the Irish people were often ignored. As Joyce says after independence in Ireland, "there is less freedom," nationalism combined with religion does not bring true liberation. The Irish case shows that we need to find a more inclusive, more transcendental basis to define the nation than religion.

■ **Key words**: James Joyce, Catholic Church, nationalism, *Stephen Hero*,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istory  
(제임스 조이스, 가톨릭교회, 민족주의, 『영웅 스티븐』, 『젊은 예술가의 초상』, 역사)

논문접수: 2022년 5월 31일

논문심사: 2022년 6월 1일

게재확정: 2022년 6월 23일